



진주 혁신도시 내공사 신사옥 조감도

목 차

건설관련 소식 1

- 경남도, 금년 국고예산 3조714억원 확보
- 경남도, 건설현장 지도,점검 나서
- 김해 율하2지구 택지개발 본격 추진
- 경남도, 재해예방사업 1,427억원 조기 발주
- 경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운영
- 진주 혁신도시내 내공사 신사옥 설계안 결정
- 경남도, 올해 산업단지 40개지구 1,005만㎡ 공급
- 세계최고 해양플랜트 R&D센터 갈사만에 건립

지식정보 7

- 도민과 소통하는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규정 정비
- 역대 최대 산업용지 분양
- 우리나라 건설사업 글로벌 경쟁력은 9위 수준

- 국토부 시설물 철거공사 관리 근본적으로 손질
-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관리 개정 법률 전면 개정
- 2011년도 주택공급 동향 발표

신기술 정보 13

- 스펠조절기능이 있는 1단 드롭형 멩에를 이용한 슬래브 거푸집 공법 (제621호)
-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와 노면일치용 유압고정장치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제622호)

건설기술심의 현황 14

계약심사 현황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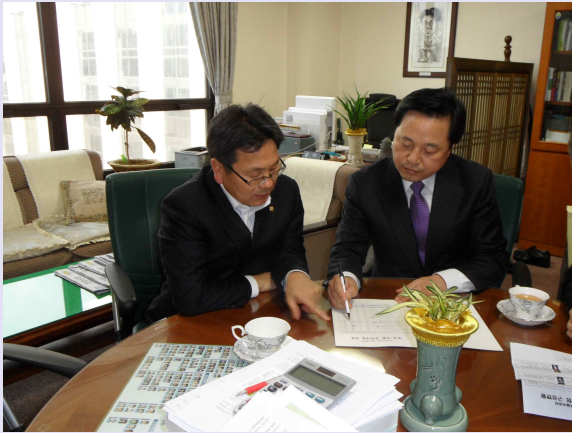
기술인 나눔 정보 15



건설관련 소식

경남도, 금년 국고예산 3조714억원 확보

- 국고보조 2조 3,245억원, 광특 7,469억원
- 국지도 예산 전년보다 507억원 증액 편성



<김두관지사 국회 예결위 간사 방문 설명>

지난 12월 31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2년도 정부예산에 경남도의 국고예산이 총 3조714억원(국고보조 2조 3,245억원, 광특회계 7,469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긴축예산 편성을 위한 정부의 시도별 광특회계 씬링 축소(437억원) 및 마·창·진 통합 인센티브(60억원) 교부 종료에 따른 2012년도 광특회계(지역개발계정) 지출한도액 감액분(497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상 최대를 기록한 2011년도 확보액(3조1,115억원) 보다 96억원(0.3%)이 증액된 것이다.

정부예산(국고보조·광특회계)에 편성된 경남도의 주요사업은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 110억원 ▲마산의료원 신축 50억원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62억원 ▲우포늪 훼손지 복원 20억원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가설 159억원 ▲양곡~완암(국대도 25호선) 건설 164억원

▲용동~동읍(국대도 25호선) 건설 124억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731억원
▲국가지원지방도로(9개 구간) 건설 757억원
▲갈사만 진입도로 1·2·3·4호선(연결도로) 개설 122억원
▲석동~소사 간도로 개설 30억원
▲조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69억원 등이다.

특히, 국가지원지방도로 건설 사업비는 끈질긴 대정부 설득작업 끝에 정부의 도로분야 투자규모 축소방침 속에서도 285억원이나 증액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또한, 내년도 국가시행사업 예산도 총2조2,502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보다 507억원(2.3%)이 증액된 것이다.

정부의 SOC사업(특히, 도로분야) 투자 축소 기조 속에서도 고속국도(5개 구간) 건설 8,036억원, 국도(33개 구간) 건설 3,413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5개 구간) 건설 349억원, 진해2산단 진입도로 건설 93억원이 반영된 것을 비롯해 복선전철(3개 구간) 건설 3,440억원, 항만(마산항 외 3개항) 건설 2,261억원,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조성 98억원, 해양플랜트 폭발화재기술 개발 기반 구축 61억원 등 최대 현안사업이 상당액 반영돼 향후 지역 현안사업을 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년 총선(4월) 및 대선(11월) 등으로 정부가 긴축예산 편성이 예상되어 예산 확보액이 2011년도 보다 대폭 줄어들 것이란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었으나, 지역·출향국회의원들의 '품앗이'를 통한 공조, 관계부처 출향공무원들과의 수차례 간담회와 김두관 도지사가 사업비 조정권을 일차적으로 행사하는 실무자들을 타깃으로 삼는 등 예산전쟁에서의 격식 타파로 이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 자료 : 예스팀당관 재정지원팀당 (055)211-2373

경남도 건설현장 지도점검 나서

- 지난해 총사업비 10억원이상 449개 현장을 대상으로 지적사항 338건 보완·개선 성과



경상남도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공사 점검반 운영규정에 따라 월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부실시공방지 및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도로, 하천, 상·하수도, 건축분야 등 10억원 이상 각종건설공사 449개소를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품질·안전관리가 미흡한 338건에 대해 보완·개선하였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총425개소 현장을 대상으로 매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매분기 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현장점검을 확대 시행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건설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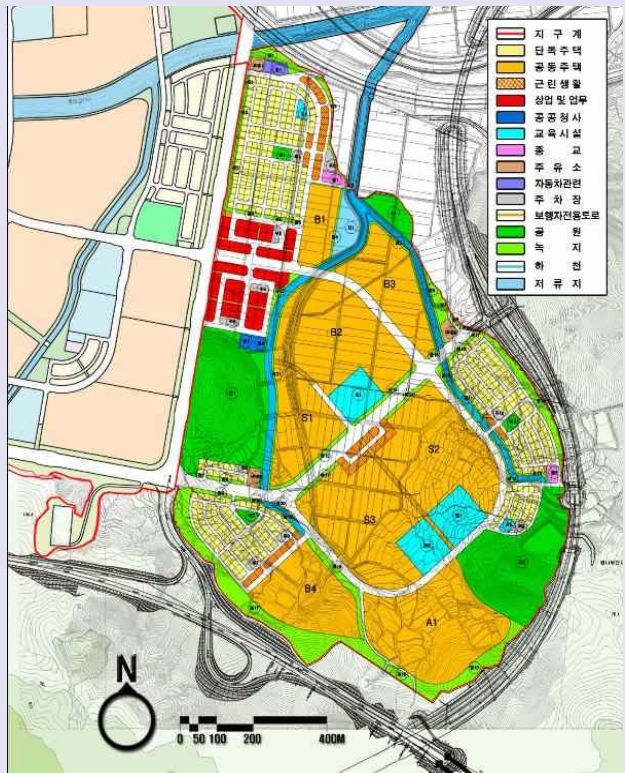
특히 현장 점검결과 현지시정,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재시공을 요구하고, 품질확보 미흡, 중대한 위해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부실벌점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며, 품질관리가 우수한 현장에 대해서는 연말에 건설유공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12년 상반기에 건설공사 현장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여 공사품질 및 안전관리 교육 통한 인식을 제고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대리인 공사 품질관리 교육 및 성실시공 공동결의, 청렴서약서 서명 등의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 자료 : 회계과 기술심의담당 (055)211-3552

김해 율하2지구 택지개발 본격 추진

- 시행자인 LH, 실시계획 경남도에 신청
- 각종영향평가 거쳐 6월말경 승인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표류해 오던 김해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지난달 30일 경남도에 신청함에 따라 본격 추진의 길이 열렸다.

경남도는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김해시 및 주민 의견청취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말경에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김해시 장유면 장유리와 율하리 일대 114만㎡의 택지에 8,500여 세대 23,000여 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2016년 까지 개발하기 위해 '05년 12월 국토해양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09년 3월 경남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를 사업시행자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그 동안 율하2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자금 유동성 문제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었다.

경남도는 김해시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상대적인 주택보급율 하락으로 장기적으로는 주택부족이 우려되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역민의 재산권침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2010년부터 도지사 서한문과 수차례 LH방문 등으로 사업시행을 촉구하여 LH에서 지난해 8월 용역을 재개하여 금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경남도는 김해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으로 김해지역 및 경남 동남부 지역의 주택난 해소에 일조함은 물론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 실시계획을 승인 할 계획이다.

김해 율하2지구는 남해고속도로와 현재 공사 중인 국도58호선, 창원~부산간 도로 율하IC가 연접하여 교통여건이 양호하며, 장유신도시, 율하신도시 등 성숙된 기존 도심 및 김해관광유통단지과 인접하여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기대되는 곳이다.

▶ 자료 :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055)211-4343

경남도, 재해예방사업 1,427억원 조기발주

- 95개소 1,427억원, 우기 전 60%이상 완공

- 5일, 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 실무회의 실시

경남도가 재해예방사업 조기 발주를 통해 도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건설업체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427억원 규모의 재해 예방사업을 2월 중에 조기 착공하고, 우기 전 60% 이상을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해예방사업 범위에 「급경사지 및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등을 포함시켜 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민들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재해예방사업 조기 발주를 위해 5일(목) 오후2시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도 및 전 시·군 재해예방사업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조기 발주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달성한 '안전경남' 이미지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도록 새해벽두부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과 정신함양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경남도 재난방재복구과장은 "우리나라의 강우특성상 7월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므로, 사업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6월말까지 주요공정의 마무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부터 준비해 조기 발주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지역 건설업계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도에서는 ‘재난은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목표아래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군에서도 각종 자연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총력행정을 펼쳐달라”면서, “특히, 공무원들의 열정에 따라 인명과 재산피해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전년도 대지진에 대응했던 일본 공무원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만큼 재해 예방단계에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2년도 재해예방사업은 총 5개 분야, 95개소, 1,427억원 규모이며, 세부 내역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31개소 571억원, 급경사지 정비 9개소 97억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7개소 67억원, 우수저류시설 확충 7개소 139억원, 소하천 정비 41개소 553억원 등이다.

▶ 자료 : 재난방재복구과 복구지원담당
(055)211-4543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운영

- 금년도 3월 구성 5~6월경 본격 운영

경남도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 및 아파트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주택건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2012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따른 품질검수 대상으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중 시장·군수가 요청할 경우 검수단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한다.

품질검수단의 주요 점검내용은 도배, 장판, 창호, 싱크, 욕실자재, 단지 내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며, 더불어 전문지식이 필요한 구조, 조경, 실내 내장·가전, 냉·난방, 안전 등의 시공상태 및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발생 원인에 대하여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2월중 검수위원을 추천받아 3월경 90명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로 품질검수단을 구성하여 5월 ~ 6월경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공동주택의 품질향상 및 하자관련 분쟁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남도에서는 검수단 및 시·군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하여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자료 : 친환경건축과 주택관리담당
(055)211-4434

진주 혁신도시내 내공사 신사옥 설계안 결정 - 무영건축컨소시엄(안) 당선



진주혁신도시 내로 이주하게 되는 공공 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LH본사 신사옥 설계(안)이 결정되었다.

그동안 LH공사에서는 진주혁신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사옥을 건립하고자 설계비 107억원으로 2011년 9월 27일 설계 공모 후 제출된 9개의 설계(안)을 가지고 LH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공개심사를 하여 5개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경상남도, 진주시, 중앙 전문가 및 LH 임원 등이 참여하는 2차 심사를 거쳐 무영건축, 디에이건축, 삼우건축 컨소시엄의 3개 작품을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2012년 1월 11일 전문가가 참여하는 3차 심사에서 무영건축컨소시엄 제출안을 당선작으로 결정하였다.

공사비 3,577억원이 투입되는 LH공사 사옥의 설계내용을 보면 지상20층, 지하2층으로 연면적이 132,724㎡이며 크게 업무공간, 민원문화 전시공간, 스포츠공간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건물 높이는 102m에 달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전기 및 지열 냉난방이 도입되었으며, 옥상녹화를 통한 외피단열성능 향상 및 계절별 태양고도를 고려하여 일사차단 효과를 낼 수 있는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지능형 건물 1등급,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등급을 획득할 계획이다. LH공사에서는 2012년 5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행정절차를 거쳐 2012년 8월 착공하여 2014년 10월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진주 혁신도시 내에는 이전대상 공공기관 11개 기관 중 한국남동발전(주) 외 4개 기관의 청사가 건립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LH공사를 비롯 4개 기관의 청사가 착공예정으로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진주혁신도시를 명품혁신도시로 만들고자 입주대상 공공기관의 정주, 교육여건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신도시 건설 협의체와 이전지원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청사 건설의 추진사항 점검 및 이전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자료 : 건설지원과 건설지원담당 (055)211-4614

경남도, 올해 산업단지 40개지구 1,005만㎡ 공급

- 전국 120개중 30%, 국토부와 협의 마쳐
- 시·군 신청면적 59%,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
경남도가 산업용지의 적정한 공급을 위해 올해 총40개 지구 1,005만㎡의 산업단지를 지정·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난해 시·군으로부터 수요 신청을 받아 실수요자 확보상황,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올해 사업승인과 착공 등이 가능한 지구를 대상으로 시·군 신청의 59%범위에서 지정했다.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지난해 연말 국토해양부와도 최종 협의를 마쳤으며, 그 결과 경남도는 전국 120개 사업추진지구 중 1/3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

경남도가 산업단지 신청면적의 59% 선정한 것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시행 이후 산업용지의 과다공급으로 산업단지조성 부진 및 미분양 부작용 우려로 2011년부터 산업용지 공급을 실제 수요량에 맞게 적정한 공급이 되도록 하는 정부의 공급 조절 및 억제 정책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2012년도 산업단지 예정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이행과 기관·부서간 협의 등을 거쳐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후 2년내 30% 이상 보상 및 사업 착수 조건" 등을 부여해 미 이행시 사업시행자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는 등 승인 후 사업지연이 되지 않도록 산업단지를 지정·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도 계획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빗물활용 생태습지형 저류지를 설치하는 등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시계획과 산업단지계획담당 (055)211-4653

세계 최고 해양플랜트 R&D센터 갈사만에 건립

- 2015년까지 16만5,200㎡에 648억원 투입
- 경남에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구축 의미



경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플랜트 폭발화재 시험연구소'와 '해양플랜트 심해저(subsea) 초고압 시험인증센터'가 경남 하동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일원에 건립된다고 6일 밝혔다.

조선산업 단지내 16만5200㎡ 부지에 국비 390억원, 지방비 165억9000만원, 민자 91억 5000만원 등 총 647억4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연구소 완공은 2015년 4월이며, 1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현재 한국은 세계 1위 조선해양강국으로 전 세계 해양플랜트 제품 제작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나 해양플랜트 전체 건조비용 10~20%를 차지하는 설계 엔지니어링을 전적으로 선진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연구소 건립으로 외화자본 국외유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노후화된 유럽·미국의 시험설비에 비해 성능이 월등한 최신식 설비 등으로 보다 정밀한 측정이 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기존의 외국 시험연구소에는 없는 극저온 폭발 화재 사고 시험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어서 설비 1기당 건조비가 수조 원을 호가하는 LNG-FPSO의 설계 엔지니어링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소 설립과 관련해 영국, 미국, 노르웨이, 일본, 이태리 등 세계 주요 선급과 영국 보건안전청 폭발화재 시험연구소, 노르웨이 화재시험연구소 등 세계 최고권위의 시험연구소와 기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 이들 기관과 긴밀한 교류 협력 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 최고 해양플랜트 폭발 화재 시험연구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료 : 전특산업과 조선해양담당 055)211-2673



도민과 소통하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 올해 17억 5천만원 투입 진주, 사천시 구축
경남도는 도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도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며, 도시계획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사업을 올해 진주시와 사천시를 대상으로 착수한다.

※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s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란 도시계획 및 개발현황과 관련하여 계획입안부터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결정사항, 도시계획시설 현황, 지형도면 고시사항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민에게 의사소통 창구역할 및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한 행정정보공개와 계획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시스템이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도민들이 관공서를 찾지 않고서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용도지구 결정 및 도시계획 변경과정 등 다소 접근하기 어려운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며, 행정적으로도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석, 관리하여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올해 사업으로 진주와 사천 2개 시에 총 17억 5천만 원을 투자한다. 한편,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 중이거나 이미 시스템이 구축된 창원, 통영, 거제, 함안 창녕, 의령의 6개 시·군은 국토해양부와 연계하여 이용도 제고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송병권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도시계획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선진화를 통한 국토의 계획적 이용과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자료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055)211-4327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 제도’ 규정 정비

-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개정 1일 시행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미신고 사업장,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 부과

앞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은 적발 즉시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정기간(60일 이내)내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로감독관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됐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3억원 이상인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인 민간공사 등에 적용되는데, 그동안은 가입신고를 회피하거나 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60일 이내의 시정지시 후 과태료를 부과해 그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노동부는 강화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퇴직공제 관련 의무위반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건설사업주의 퇴직공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합동으로 매월 퇴직공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노동부는 이행 부진 건설공사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퇴직공제 누락 사업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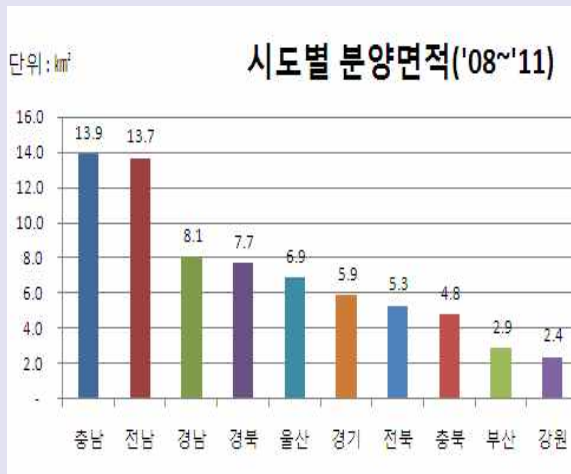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의 퇴직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막아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며 "앞으로는 퇴직공제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누락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용대상 확대,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자료 : 대한국토일보 (2012년 1월 4일)

역대 최대 산업용지 분양

- 기업의 본격적인 투자확대 기대

국토해양부는 현 정부 4년간 여의도면적(2.9km²)의 25배인 72.6km²(2,196만평)의 산업단지(산업용지기준)가 분양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연평균 분양면적은 과거 정부 대비 약 2.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업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지표이다. 특히 지역별로는 충남 13.9km², 전남 13.7km², 경남 8.1km² 순으로 분양이 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가 분양되고 기업이 입주하기까지는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기간중 분양된 산업단지에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의 입주가 완료되면 24만명의 일자리와 90조원의 생산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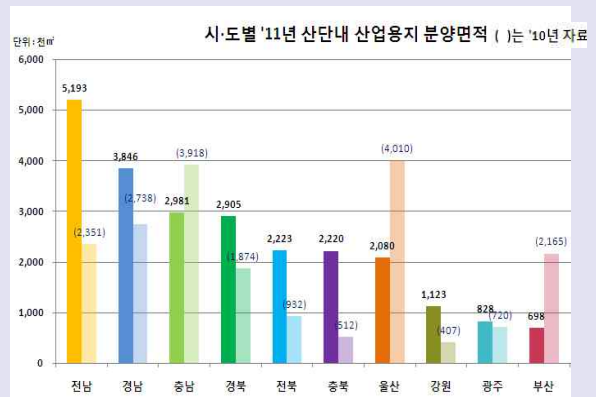
*간접고용효과 포함시 235만명, 간접생산효과 포함시 468조원

아울러 전국 산업용지중에서 산업단지의 비중이 '06년도 54.5%에서 '10년도에 55.5%로 증가하고 개별입지의 비중이 감소하는 등 국토의 난개발 방지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산업단지 분양면적이 25.7km²(778만평)로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기준으로 사상최대였던 2010년도의 실적(21.7km²)을 뛰어 넘는 것이다.

시·도별로는 전남(5.2km²), 경남(3.8km²), 충남(3.0km²), 경북(2.9km²), 전북(2.2km²), 충북(2.2km²) 지역에서 분양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분양이 활성화된 이유는 현정부 출범이후 산단 인허가 기간단축 등 규제완화와 기업의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수출호조에 따라 연관산업 설비투자확대 등 기업들이 장래 사업전망을 밝게 보고 국내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 자료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02)2110-8178

우리나라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은 9위 수준

-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평가모델 평가 결과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국가별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평가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 모델에 따라 평가한 결과 2011년 국내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은 평가대상 국가 중 9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간 건설분야별 전문가 설문에 기초한 선진국 대비 건설기술 수준에 대한 조사 등은 있어왔으나, 정량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건설산업 경쟁력을 평가한 모델은 없어, 이번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평가모델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번에 마련한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평가지표'는 '건설인프라 경쟁력 평가지표'와 '건설기업역량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건설인프라 경쟁력 평가지표'는 건설시장규모, 건설시장성장률, 시장안정성, 건설리스크로 구성되며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되는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하는 국가의 총체적 능력을 나타낸다.

'건설기업역량 평가지표'는 시공경쟁력, 설계경쟁력, 가격경쟁력지표로 구성되며 건설기업의 경영능력과 성과를 나타낸다. 각각의 세부지표는 통계청, 국제투명성기구, ENR지, Global Insight 등에서 발표하는 정량적 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본 평가모델을 활용하여 2011년 22개 국가를 선정하고 평가한 결과, 종합평가에서 미국이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 2위가 중국이었으며 우리나라는 9위로 나타났다.

세부지표인 '국가별 건설인프라 경쟁력 지표' 평가결과 역시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를 차지하였고, 한국은 11위를 기록하였다.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평가' 결과의 경우에는 미국 1위, 이탈리아 2위를 차지하였고, 한국은 12위를 기록하였다.

세부지표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건설부패인식과 같은 시장안정성과 설계생산성과 같은 설계 기술경쟁력이 하위권으로 나타나 해당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평가결과를 금년말 수립예정인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건설 경쟁력 종합평가결과 (2011년)

종합 순위	국가명	건설인프라 경쟁력 지표 종합평가		기업 역량 종합평가		종합 평가 (인프라지표×35% + 기업역량지표×65%)	해외 매출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1	미국	100.0	1	100.0	1	100.0	1
2	중국	88.4	2	93.6	3	91.4	2
3	이탈리아	63.4	16	94.4	2	81.1	6
4	영국	74.9	7	82.2	7	79.1	7
5	독일	72.6	9	83.7	4	79.0	5
6	프랑스	73.7	8	81.0	9	77.9	3
7	네덜란드	67.5	12	82.8	6	76.2	12
8	호주	77.8	4	72.5	16	74.8	10
9	대한민국	67.6	11	78.3	12	73.7	8
10	벨기에	64.2	15	80.5	11	73.5	20
11	일본	79.6	3	68.3	18	73.1	9
12	스페인	59.2	18	81.3	8	71.8	4
13	오스트리아	64.4	14	76.6	14	71.3	13
14	포르투갈	53.6	20	83.1	5	70.5	19
15	스웨덴	67.9	10	67.9	19	67.9	14

▶ 자료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02)2110-8393

국토부, 시설물 철거공사 관리 근본적으로 손질키로

- 철거계획서 수립 의무화, 시공·감리자의 현장 관리강화 등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10일 강남구 역삼동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를 계기로 철거 현장의 작업실태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

현행 법령에는 시설물 설계·시공에 관한 기준과 확인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철거공사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만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관리법에는 10층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공자와 감리자의 감독이 소홀하여 하도급자의 무리한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우선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감리자의 관리하에 철거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5층이상 건축물과 책임감리 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에 “철거계획서”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계획서를 안전진단기관이 확인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공법선정·안전지침 등을 포함한 “철거공사 시행요령”을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고 해체공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건축물 해체·대수선 시에도 감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철거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건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자료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2)2110-8393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숙사 준주택 포함,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 세대별 규모 제한 적용 배제 등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11.9.16 공포, '12.3.17 시행 예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12.7 대책 후속조치로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숙사를 준주택에 포함

(시행령 안 제2조의2 개정)

(현행)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이 필요하나, (준)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기금 지원 불가 (개정) 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준주택의 종류에 기숙사를 포함

*현행 준주택 :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②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의 단위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시행령 안 제21조제1항 개정)

(현행)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초고층(50층 또는 150m 이상)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지침을 통해 세대별 면적 제한(297㎡)을 적용받지 않고 있으나, 건축허가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초고층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도 297㎡ 면적제한이 적용되고 있음

(개정)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 활성화, 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품질의 주거상품 개발 등을 위해,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대상여부에 관계없이 면적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세대별 규모제한 적용을 배제

③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시행령 안 제42조의2 개정)

(현행)분양가상한제 하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인정범위 또한 감정평가금액의 120%내로 제한되어, 사업자의 실소요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감정평가 소요

(개정)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대상에 포함하고, 실매입가 인정범위를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④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 완화**

(시행령 안 제73조제1항제1호 개정)

(현행) 주택관리사보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주택 규모를 5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50~500세대)으로 규정하고 있어 14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근무경력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개정)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50세대이상 14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근무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포함

⑤ **대한주택보증 환급이행 요건 구체화**

(시행령 안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 개정)

(현행)대한주택보증은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준공·분양을 이행하거나 분양대금을 환급하는데,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 정상입주가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택의 정상적인 건설 및 입주에 차질이 발생

(개정) 공정율 80%이상인 사업장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단, 감리자 확인)

⑥ **기타**

공동주택 공용부분 수선시 고효율기자재 등을 의무 사용토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선 (시행규칙 안 제26조 제30조 관련 별표5 개정) 등

※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2월 5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 /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02)2110-823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관리 개정 법률 전면 시행

-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단축 · 토지재결 신청기간 연장 등

국토해양부는 1월 20일(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은 기업도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 개발구역내 토지 수용 재결기간은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30일→20일)하며 개발구역 해제나 변경으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경우 종래의 용도지역 등으로 환원된다.

이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토지 수용 재결신청기간 연장으로 기업도시 사업의 안정적 진행이 가능해지고 개발구역 해제·변경 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별도 용역이 필요 없어져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신속한 행정처리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의 토지재결 수용기간 연장과 용도구역 환원 규정은 현재 개발계획 변경 중인 무안기업도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주요 개정내용

① 토지 수용 재결 신청 기간 연장

○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 수용 재결 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4년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장함

②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 기간 단축

○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기존 30일에서 2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③ 지정 해제(변경)시, 인·허가 및 용도지역 등을 환원

○ 개발구역 해제(변경)시 개발(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용도구역·용도지역 등을 환원하고 고시

▶ 자료 :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02)2110-6187

국토해양부는 '11년도 주택 착공·준공·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 등 주택 공급동향 자료를 1. 25(수)에 발표하였다.

주택 착공은 전국 42.4만호로 집계되었으며, 수도권은 19.7만호, 지방은 22.8만호로 나타났다.

준공은 서울지역 실적의 대폭 증가(56.1%) 등으로 수도권에서는 전년대비 증가(0.2%)하였으나, 전국적으로는 2.3% 감소하였다.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은 전국 28.5만호로 전년대비 41.8%, 3년('08~'10년) 평균대비 24.5% 각각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방은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서 벗어나 전년대비 115.9% 늘어난 16.5만호를 기록하였다.

□ 2011년 분양(승인) 실적

구분	합계	분양	임대	조합
합계	284,923	200,481	56,506	27,936
서울	38,390	18,510	6,974	12,906
인천	10,620	7,184	3,376	60
경기	71,405	39,655	26,331	5,419
부산	29,832	23,406	2,848	3,578
대구	11,295	9,958	335	1,002
경남	32,063	28,166	3,897	0
기타	91,318	73,602	12,745	4,971

▶ 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055)2110-8265

2011년도 주택 공급 동향 발표

-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 전국 28.5만호로 전년대비 41.8% 증가,
- 수도권 준공실적 전년대비 소폭(0.2%) 증가, 서울은 56.1% 증가



신기술 정보

스팬조절기능이 있는 1단 드롭형 멩에를 이용한 슬래브 거푸집 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오경근
	조선판넬 주식회사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621호
- 기술분야 : 토목시공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슬래브 거푸집 해체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슬래브 거푸집의 지지구조를 개선한 공법으로서,

멍에를 1단 낙하시킨 후 슬래브 거푸집을 해체하여 슬래브 거푸집이 바닥에 직접 낙하되지 않고 멩에에 걸쳐지게 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음을 줄이고, 거푸집의 변형 및 손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코너재와 멩에 사이에 연결된 슬라이드 레일은 스펠 조절 기능이 있어 벽체의 수직도에 경미한 시공오차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저소음으로 슬래브 거푸집을 설치 및 해체하는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코너재와 멩에 사이에 스펠 조절 기능이 있는 슬라이드 레일을 연결한 슬래브 거푸집용 드롭형 멩에 및 이를 1단 낙하시켜 슬래브 거푸집을 설치 해체하는 공법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와 노면일치용 유압고정장치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SMT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삼서건설(주)
	삼서공업 (주)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622호
- 기술분야 : 토목시공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대.중.소 규격)로 맨홀주변의 작업조건에 따라 원형절단기의 규격을 선택하여 노면을 수직으로 원형절단하고, 유압고정장치 및 공기조절튜브로 노면과 맨홀틀을 일치시키며, 이동식 혼합장치로 현장에서 상온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하여 맨홀보수 부위에 포설하는 맨홀보수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대.중.소 규격)로 노면을 수직으로 원형절단하고, 유압고정장치 및 공기조절튜브로 노면과 맨홀틀을 일치시키며, 이동식 혼합장치로 현장에서 상온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하여 맨홀보수 부위에 포설하는 맨홀보수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연왕

2012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계획

- 심의일자 : 2012. 02. 24(금)
- 장 소 : 경상남도청 신관 3층 중회의실
- 요 청 자 : 거제시장, 경상남도지사(생태하천과)
- 건 명 : 고현지구 지하터널식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외 2건

의안 번호	요청 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발주청
2012-01-01	입찰 방법 (일괄 입찰)	고현지구 지하터널식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위 치 : 거제시 고현동 독봉산(지하 터널식) · 사업내용 : 저류지 L=640m, B=10.0m, H=10.0m · 사 업 비 : 480억원(공사비 431, 보상비 49) · 사업기간 : 2012 ~ 2016년	거제시
2012-01-02	실시 설계 (적정성)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 위 치 : 진주시 가좌동(가좌천/지방하천)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3.1km, B=30~50m · 사 업 비 : 308억원(공사비 265, 보상비 43) · 사업기간 : 2012 ~ 2016년	경상남도
2012-01-03	실시 설계 (적정성)	신현 하수관거 정비사업	· 위 치 : 거제시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 사업내용 : 하수관거 정비 L=9.5km · 사 업 비 : 132억원(공사비 132) · 사업기간 : 2012 ~ 2014년	거제시

▶회계과 (O55)211-3554



계약심사 연왕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1.12	계	53건	46,771	43,647	
	토목	양지도로 확포장공사 외 20건	37,629	34,790	
	건축	창녕 성산복지회관 신축공사 외 3건	2,707	2,581	
	기술	고현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4건	2,794	2,694	
	구매	농어촌 공영버스(디젤 저상버스 구매) 외 16건	1,100	1,080	
	전기	함안 축구전용구장 조성사업 전기공사	626	594	
	일반	폐기물(정수오니) 위탁처리 용역 외 3건	1,871	1,866	
	인쇄	2012년도 전시도록 인쇄	44	42	

▶회계과 (O55)211-3543



기술인 나눔정보

제96회 기술사 필기시험 안내

구 분	일 자	비 고
필기시험 원서접수	1.13~1.19	
필기시험일	2.12	원서접수 (인터넷) 첫날
합격(예정)자 발표	3.22	09:00부터
응시자격서류 (학력)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3.26~3.29	마지막 날 18:00까지
면접시험	4.28~5.10	응시자격 서류 방문제출
합격자 발표	5.18	

제40회 기사산업기사 필기시험 안내

구 분	일 자	비 고
필기시험 원서접수	2.3~2.9	
필기시험일	3.4	원서접수 (인터넷) 첫날
합격(예정)자 발표	3.16	09:00부터
응시자격서류 (학력)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3.19~3.22	마지막 날 18:00까지
실기시험	4.21~5.4	응시자격 서류 방문제출
합격자 발표	6.1	

제40회 「건설현장 공무과정」 교육 안내

1. 목적 : 건설현장 공무업무에 대한 현장 지식과 업무능력 향상
2. 일시 : 12. 2. 15(수)~17(금)
3. 장소 : 대한건설협회 건설인재교육센터 (논현동 건설회관 1층)
4. 수강생 정원 : 60명
5. 교육훈련비 : 회 원 사 1인 350,000원, 비회원사 1인 420,000원
7. 참가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www.cak.or.kr)

※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www.cak.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 (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재 순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3552~6

FAX : (055)211-3519

e-mail : maansa070@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